

#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 PROGRAM

18:30~19:00	참가자 등록	<p><b>[사회]</b></p> <p>오창민 협동조합 성북신나</p>
19:00~19:10	성북구 축제영상 상영	
19:10~19:15	<p><b>[축제거너번스 포럼 소개]</b></p> <p><b>김지희</b> 협동조합 누리마실친구들 이사장/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무국장</p>	
19:15~19:35	<p><b>[기조발제]</b></p> <p><b>윤성진</b> 한강몽땅축제 총감독 : 축제의 원형과 도시축제의 미래</p>	
19:35~19:55	<p><b>[발제1]</b></p> <p><b>김지희</b> 협동조합 누리마실친구들 이사장/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무국장 : 성북지역 축제, 이슈와 지속가능성</p>	
19:55~20:15	<p><b>[발제2]</b></p> <p><b>김진경</b> 정릉버들잎축제 예술감독 : 동축제, 지역축제의 정체성</p>	
20:15~20:50	<p><b>[지정토론]</b></p> <p><b>하장호</b> 성북구 축제위원회/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이사장 <b>도재형</b> 장위부마축제MP/성북진경 총예술감독 <b>이종임</b> 성북구창조문화도시위원회 위원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b>권경우</b>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p>	
20:50~21:30	종합토론	



# CONTENTS

▣ 기초발제	
축제 의 원형 과 도시 축제의 미래-----	05
윤성진 한강몽땅축제 총감독	
▣ 발제1)	
성북지역축제 이슈와 지속가능성-----	29
김지희 협동조합 누리마실친구들 이사장/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무국장	
▣ 발제2)	
동축제 지역축제의 정체성-----	39
김진경 정릉버들잎축제 예술감독	
▣ 토론)-----	45
하장호 성북구 축제위원회/협동조합 고개앤마을 이사장	
도재형 장위부마축제MP/성북진경 총예술감독	
이종임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위원/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 [기조발제]

축제의 원형과 도시축제의 미래

윤성진 한강몽땅축제 총감독

## [발제 1]

성북지역축제 이슈와 지속가능성

김지희 협동조합 누리마실친구들 이사장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무국장

## [발제 2]

동축제 지역축제의 정체성

김진경 정릉버들잎축제 예술감독

우리동네 아뜰리에 대표



# 기조발제

## -축제의 원형과 도시축제의 미래-

윤성진

(한강릉탕 증감록 / 작은축제학교 교장)

### 1. 열기

### 축제의 위기

#### 축제의 위기?



축제수의 지속적인 감소현상



축제는 지역의  
돈벌이 수단

1. 열기

문제제기

지자체 축제담당 공무원의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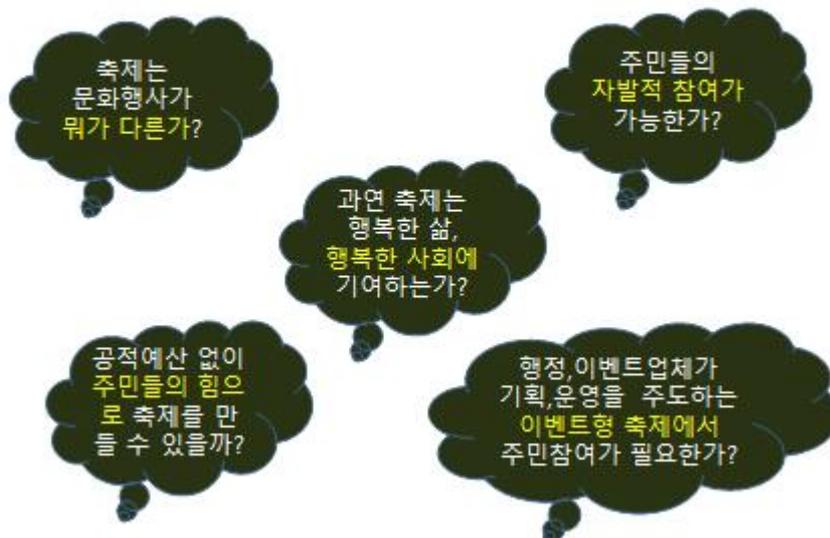
- “경쟁력 없는 축제에 울며겨자먹기식의 지원을 계속해야 하나요?”
- “킬러콘텐츠에 대한 요구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 “무슨이유로 찾아왔던지 방문객 수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 “시장.구청장.군수님 바뀌면 이 축제가 계속 될까요?”
-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란 말입니까? ”
- “주민들이 과연 이 축제를 필요로 하는 건가요? 누굴위한 축제일까요?”

3

1. 열기

문제제기

축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의 확산



4

II. 주제찾기 축제의 정의

축제의 정의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 또는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 (L.Fredericksen)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도시의 문화

마을의 문화

민간의 문화

문화의 축제

지역의 문화

국민의 축제

국민의 축제

축제의 문화행사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축제를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본질'은 존재하는가?

↓

원형적 축제

축제의 원형성

↓

축제의 지속가능성  
축제 개최 의의

6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축제의 원형성  
을 보여주는

원형적 축제에  
대한 탐색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멕시코 망자의 날 축제 (멕시코 대표축제)  
- 삶과 죽음의 만남, 해골분장의 일탈, 소비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몽고 나담축제(Naadam Festival)  
- 씨름, 말타기, 활쏘기 / 몽고의 국가축제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태국 송크란 축제 (세계 10대 축제)  
- 종교적 기원의식, 축복과 평화의 전통, 과도한 일탈성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강릉단오제

- 대관령산신제 등 제례, 악가무의 유희성, 자발성

11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후쿠오카 기온아카사 마쯔리 (일본 3대 전통 마쯔리)

- 신사에서 의식, 신들의 시간성, 경쟁, 자발

12 12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부늘의 토마토축제 (유럽 10대, 스페인 3대 축제)  
- 과도한 소비성, 1시간의 일탈과 몰입의 엑스타시

13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



이제 이 아이는 물고기에요

아마존 와우라부족의 '뺨끼 축제'  
- 남자들만의 축제, 일탈, 춤과 노래, 아이들의 볼프리에공

14

II. 주제찾기
축제의 원형성

원형적 축제를 통해 발견하는 축제의 원형성

- ✓제의성 (기원, 제례, 의식)
- ✓경연성 (경연, 경쟁)
- ✓일탈성 (무아경, 비일상성)
- ✓유희성 (놀이, 춤, 노래)
- ✓집단성 (공동체, 참여)
- ✓자발성 (주도적, 주체적)

15

II. 주제찾기
축제의 구성요건

**축제 구성요건** (축제 구성의 3대요건 - 집단성(인간), 지역성(공간), 주기성(시간))

축제구성요건	현대의 스페인	원시부족 와우라
축제명칭	산페르민 축제	백미 축제
추진주체	시민 축제조직위원회	마을 주민 전체
축제수용자	시민, 관광객 100만명	마을 남성
추진목적	페르민 성인 순교 기념	백미 수확을 기원, 기념
축제소재	성인의 순교이야기	백미
개최장소(서식환경)	말플로나광장, 두우장, 거리	마을광장
개최시기	매년 7월 6일 - (1주일)	백미 수확철 3일
규칙(축제영향)	두우의 규칙, 848m 성인	여성들의 출입을 금함
유희성 프로그램	노래, 춤, 두우, 캐릭터행진	놀이, 춤, 노래
일탈성 프로그램	원소달리기, 노숙, 물뿌리기	부락여성 피하, 이웃 여성 동정 기사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폭력
축제먹거리	빠에야(볶음밥), 하몽(수제염)	빠우, 원주오까, 망가우
기획자 (기획집단)	조직위원회	추장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의 정의

원형적 축제  
에 대한  
다소 장황한  
정의



특정한 공동체가  
공동체가 합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원을 담아  
공동체가 가진 특화된 자원을 소재(Theme)로  
하여 일정한 시기에  
상징적인 장소에서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펼쳐지는 정례적인 문화 행사로  
일상을 넘어선 예술활동과 놀이를 통해  
축제적 공간을 구현하여  
일상적 삶을 통해 손상된 정서의 치유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  
공동체의 유지, 강화에 기여하는  
본성적인 공동체 문화활동.

II. 주제찾기

원형적 축제의 기능

원형적 축제의 기능



- ✓ 소속감, 일체감의 체험
- ✓ 두려움의 극복을 통한 정서적 안정
- ✓ 일상적 삶에서 축적된 긴장의 해소
- ✓ 사회적 존재로의 승인 (통과의례)
- ✓ 신과의 합일을 통한 안정감의 획득
- ✓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확인
- ✓ 공동체의 역량(부, 힘, 지혜)을 과시



**But 지금의 축제는  
사회적 치유기능을 갖고 있나?**

III. 치유와 놀이

치유의 정의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治癒)  
= healing, cure, recovery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  
치료하여 병을 고침.

치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또는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의 속성으로도 해석됨.  
치료는 시술의 의미로 '외적 치료'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며, 치유는 긴 과정을 거치는 내적 치유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됨.

치유제(일본어: 癒し薬 (いやしやく)) 이마시게타는 일본에서 정온이를 중심으로 치유의 특징, 특성을 가진 인물이나 문체, 문화 요소 등을 일컫는 표현. 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등 허위문화 등에서 언급되며, 이를 치유물이라고 부른다. 과거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만타지나 향수(療效)를 주제로 하는 비디오 게임도 치유제라는 장르로 불리운다.

정상상태로의 회복, 건강의 회복,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의 구현

19

III. 치유와 놀이

치유의 목적

치유  
의 목적?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

건강 (健康)  
health, fitness, healthy, fit, well, sound  
[영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well being)

세계보건기구(WHO)의 현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인종·종교·정치·경제·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건강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상태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삶 = '행복', '행복감'을 느끼는 삶  
사회적 행복, 행복지수

20

Ⅲ. 치유와 놀이
치유의 목적

**원형적 축제는  
치유 기능을  
통해**

**행복한 사회  
를 추구해 왔  
다.**

그런데...  
2000 개가 넘는 축제를  
개최하는 한국사회에서  
축제는 치유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 "한국, 행복지수 158개국 중 58위(5.835)"
-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사망원인의 25.8%)
-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수 세계 1위
- 청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 40대 남성 자살률 세계 1위
- 노령층 자살률 세계 1위

- 10대~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
- 청년 사망원인 2위 자살

7인10855 (1)      2015년 사망원인 순위 (1위~5위, 출처: 한국 2006년 통계)

2015년 주요국 자살률 (10만명당 명)

일본	2.8
스웨덴	7.5
독일	10.8
스페인	12.3
오스트리아	13.6
인도네시아	15.8
미국	18.7
한국	26.8
평균	13

이렇게 우울한 한국사회에서  
축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는 축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Ⅲ. 치유와 놀이
치유의 목적

축제를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의  
실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소속감

긴장의 해소를 통한 안정감

자발적 참여로 얻어지는 자존감, 성취감

축제적 일탈을 통한 해방감

↑ 초월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심미적 욕구

학습(인지)의 욕구

존중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III. 치유와 놀이
'놀이'의 정의

놀이하는 인간  
Homo Ludens

||

축제하는 인간  
Homo Festivus

\*축제는 인간의 유희적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놀이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인간은 어떨 때 더 큰 재미를 느끼는가?

재미진화모형

23

VI.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제례,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치유적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들로 현대 축제에서 '제의적 프로그램'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모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고, 체험을 통해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숭고미'와 '감동', '함께하는 몰입의 공감'을 체험하게 해준다.

- 대규모의 집단연행
- 대규모의 집단간 경연
- 거대한 볼놀이
- 대규모 시식, 식음 행사
- 압도적인 퍼레이드 - 리우카니발
- 거대한 전시물
- 대규모 연주, 공연 집단고행
- 대규모 기원행사

24

Ⅵ.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예시 1. 대규모의 집단놀이 및 경연



일본 후쿠오카 '기운야마카사 마쓰리' - 가마메고 달리는 오이야마가 하이라이프임. 5km를 30분내에 달려야 한다.



충남 당진군 '기지사 읍다리기 축제' - 세계 최대규모의 읍다리기 축제. 200m, 직경1.5미터, 무게는 40톤.



경북 안동 '민속축제-왕건과 견훤의 싸움을 재현한 '왕동차전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



Great American Water Balloon Fight - 팀별로 2만 2천 개의 물풍선을 만들어 던지는 대규모 물풍선 행사

Ⅵ.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예시 2. 대규모의 집단연행(퍼레이드)



일본 도쿄 교겐지 '아와오노리' - 4백년 역사를 지닌 축제로 전통악기로 연주하며 전통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춤 행렬. 1만명 이상의 무희가 참여



충남 천안 '용타령 춤 축제' - 국내 최대규모의 야외 춤 축제로 춤 퍼레이드, 라인댄스, 춤경연 등.



서울연등축제 -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진 연등축제, 5만 명의 자발적 참여..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축제

VI. 현대축제의 제의성 <span style="float: right;">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span>	
<b>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b>	<b>예시 3. 거대한 불꽃과 불놀이</b>
	
<p>미국 '버닝맨 축제' - 사막에서 펼쳐지는 1주일간의 신도시 버닝맨시티의 마지막날은 모든 것을 불태우는 날.</p>	<p>스페인 파야페스티벌(Las Fallas Festival)- 700개에 달하는 조형물이 축제의 마지막날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진다.</p>
	
<p>서울세계불꽃축제 - 100만명이 모이는 국내 최대 불꽃축제, 서울 축제 인지도 1위.</p>	<p>스코틀랜드 러릭 '바이킹 불 축제(up Helly Aa)' - 유럽 최대의 불 축제로 평가받는 축제. 햇볕형진과 바이킹 형상을 불태우는 의식.</p>

VI. 현대축제의 제의성 <span style="float: right;">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span>	
<b>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b>	<b>예시 4. 대규모 시식, 식음행사</b>
	
<p>독일 뮌헨 맥주축제 -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축제 650만명이 650만리터의 맥주를 마신다. 영주의 딸 '공주의 결혼식'을 축하하려는 결혼피로연에서 출발</p>	<p>서울 김장문화제 - 국내에서 관련되는 김치관련 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의 김치관련 축제로,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과 함께 출발.</p>
	
<p>전주 비빔밥 축제 - 3천여명의 비빔밥 만들기 행사.</p>	<p>대구 2013 수상 페스티벌 - 1020m 김담말기 한국 기네스북 도전 행사</p>

Ⅵ.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예시 5. 압도적인 화려함과 장식



브라질 리우카니발 - 세계 3대 축제로 행렬 컨셉과 참여 출연진들의 미상의 화려함은 세계 최고를 자랑.



니스 카니발 - 다양한 민족의상 행렬과 화려한 장식들.



29

Ⅵ.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예시 6. 거대한 전시물, 조형물



일본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 - 대형 등롱 제작하여 거리를 행진



스페인 파야페스티벌(Las Fallas Festival)- 700개에 달하는 크고작은 조형물들이 도시를 가득채운다.



니스카니발 - 대형 퍼레이드와 퍼레이드 행렬과 함께하는 거대한 인형의 행렬이 압도적 감동

30

Ⅵ.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예시 7. 대규모 연주, 연희, 합창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 로마시대 원형경기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최고의 오페라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 거대한 구조물과 수백명의 합창단의 연주와, 오페라 공연은 자연과 예술의 놀라운 조화를 경험하게 함.



Ⅵ.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예시 8. 비 일상적 공간성의 구현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한타지를 수상무대로 구현



미국 네바다주 '비남엔 축제' - 매년 '사막에 생기는 축제의 도시' 대형 조형물과 축제 폐막일 대형 조형물을 불태우는 의식이 인상적



VI.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예시 9. 집단고행, 위험한 도전



스페인 산페르민 축제 - 일소달리기 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매년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



한강동명 - 한강나이트 워크 42k, 한밤중 한강엔 42킬로미터를 걷는 10시간의 대 장정.



리아단 - 매년 이슬람 신지를 찾는 순례자들의 열렬한 영혼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축제

VI. 현대축제의 제의성

현대축제의 '치유' 프로그램

현대 축제의 '치유적 기능'의 프로그램

예시 10. 현대화된 기원과 정화



덜집태우기



일본 아키타현 '아키타 강도 축제' - 쌀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형사. 8m가 넘는 거대한 제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



파야페스티벌 성모상에 헌화



대보름 강강수월래



제주 돌불축제 장면



소원 유등 띄우기

IV. 도시축제의 미래
미래축제의 성공전략

## 미래축제 성공전략

- 원형적 축제의 '치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현대화된 '제의성'의 발견**
  - 기원형식의 프로그램 강화, 환경연출을 통한 시간간 컨셉 설정, 전통축제의 제의성의 보존, 축제의 '치유적기능'에 대한 이해 확대.
  - 소원문적기,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등 기원형식의 프로그램의 가치 부여
- 원형적 축제의 '축제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탈적 '놀이'의 자발성 실현**
  - 과정이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참여의 제도화, 수용자 주도성의 강화
  - 축제의 '놀이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한 '일탈성 프로그램'의 기획
  - 축제의 환경연출, 시간간 전략을 통한 축제의 일탈성 강화
- 작은 마을단위(읍,면,동 이하), 소 공동체 축제의 활성화로 축제생태계 확대**
  - 작은 축제의 활성화로 공동체 문화활동의 치유적 가치의 확산
  - 자발적 놀이문화의 실현과 참여를 통한 경험의 축적
  - 취향공동체, 인디문화 등 소그룹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외적 성장보다 내적 충실성, 축제 주인이 되는 '매니아', '팬덤' 확대로 지속성 강화**
  - 성장지향적 축제문화의 극복, '작고 강한' 감소형 축제의 확산을 권장
  -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매니아'층의 참여 '팬덤'의 확대로 지속성, 자생성의 확립
  - 지원없이도 존립가능한 자생적 축제의 확대로 축제 생태계 강화

35

IV. 도시축제의 미래
미래축제의 성공전략

## 미래축제 성공전략

- 축제간의 연대,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문화생태계의 중심역할 회복**
  - 모든 문화적 활동의 원천이었던 원형적 축제의 플랫폼적 기능을 회복
  - 소 축제들간의 연대와 협업,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한 축제문화 전체의 성장을 도모
- 미래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축제문화의 선도성 회복 - 환경, 생태, 에너지, 생명**
  - 환경보존과 Co2감소 등 전 지구적 가치를 반영한 축제 기획과 실천
  -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실천의 가치를 축제를 통해 확산
- 플랫폼형 도시축제를 통해 과도한 기획, 과도한 자원투입을 극복하고 지속성 강화**
  - 작은 축제들의 연대와 참여를 가능케하는 도시축제의 플랫폼 구현
  - 행정의 지원과 관여를 최소화한 축제 시스템의 구현으로 자생적 축제문화 형성
  - 협력적 기획, 최소의 소비, 내적 충족감을 높이는 과정적 축제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36



축제란, 결국  
우리의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장치이자  
가장 인간다운 본성의 발현이다.





## 성북 지역축제의 이슈와 지속 가능성

김지희

(협동조합 누리마실친구들 이사장/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무국장)

### 서문

축제는 고대 종교의 제례의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느새 축복과 기원을 담던 축제는 일상에서의 비밀상과 비생산이 허용되는 일탈 기간을 담아내면서 현대사회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비단 뒤르캠이 말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프로이트가 짚어낸 전도와 비밀상의 성격조차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는 적정한 휴식과 생활 문화 향유의 관점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실로 비생산적이고 때론 소비와 파괴를 유도하기도 한다. 도로를 점유하고, 행렬하고, 멸절한 식당 대신 거리로 나오고, 몇 시간 후면 월상 복귀되어야할 공간 변형이 일어난다. TV나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공연자를 만나고, 왕이 될 수도, 거지가 될 수도 있는 상징의 시간이 부여된다. 주차장은 작은 공연장이, 동네투어 안내소가 된다.

달힌 공간이 열리고, 열린 공간이 왜곡되는 순간, 우리는 축제의 심장부로 내디뎠음을 인지할 수 있다.

축제가 지나는 예외와 전복, 평등의 이미지로 인해 몇몇 학자들은 축제를 고대로부터 구축되어온 종교 제례, 놀이, 전승의 속성과 더불어 공동체를 안정화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주요 체계로 여겨왔다. 반대로 1970년대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맞물려 일부 축제는 사회를 반영하고 때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내 확산해지는 빈부격차로 인해 축제는 특정 계층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위를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쟁과 이념으로 유린된 역사문화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가는 전통 전승의 축제들이 상존하는 한편, 축제 실행의 단계에서 주민이 타자화되는 가운데 공동체의 힘과 축제전문가의 영역이 구분되어 관광축제와의 변별이 어려워 지곤 한다.

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로 한걸음 들어오면 협동체 중심의 마을 개념을 복원 또는 구축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이제 도시 사회의 구조로 인한 개인 소외, 사회 자정 능력의 상실은 언급하기 민망할 만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겪는 현상이다. 개개인이 구속된 일상을 공동체와 함께 넘어설 때, 축제는 공동창작의 산물이기에 가지는 다중의 기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축제를 통해 금기에 도전하고 미래를 투영하고 일상을 벗어나는 동안 개개인의 해방감과 더불어 함께 기울인 노력만큼 집단 의식이 발현되기도 하고, 역으로 지역사회의 누추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축제는 때로 사회 통합에 힘쓰고, 때로 사회의 거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공동체로 들어올수록 그 실체는 더욱 극명하다.

## 성북 지역축제 일반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6년부터 10년 주기로 지역축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발간된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2016)는 2014년 현재 3회 이상 개최된 종합축제 형태의 행사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의 경우 2014년 현재 7개의 지역축제와 2개의 소규모 마을축제가 적시되어있는데, 서울시 내에서도 도봉구 다음으로 많은 수다.

성북구에서는 2014년 이후에도 몇몇 축제가 생겨났으며 지역 내에서 축제로 분류할 수 있는 행사 역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성북구와 민간에서 주최하는 몇 가지 축제를 월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월	축제명	개최횟수(2017년현재)
5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9회
	어린이친구 성북페스티벌	5회
	유럽단편영화제	5회
	선잠제향	24회
6월	심우장 다례재 만해 한용운 선사 라틴아메리카축제	6회
8월	성북문화바캉스	3회
9월	세계맥주축제	2회
	구석구석잔치	3회
10월	성북진경 페스티벌	6회
	성북훈민정음축제	2회
	월곡 달빛축제	1회
11월	성북 책모꼬지	7회
12월	유러피안 크리스마스마켓	8회
	성북구 청소년 동아리페스티벌	4회

&lt;표 26\_ 월별 성북지역축제 현황&gt;

위에 언급된 축제 외에도 동축제를 비롯하여 개운산 해맞이행사, 송년음악회, 각종 단체의 산신제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화학작용3, 성북예술제와 같은 연극축제가 열린 바 있다. 그밖에도 - 기존 정의에 따르면 축제의 범주에서 제외되지만 - 예술 장르별 행사나 개울장, 고개장, 나누장, 월장석방방방 등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마을장터 역시 각자만의 주기와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축제인류학」(2015)에서 류정아가 분류한 한국 축제의 주제별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마을곳으로의 축제, 지역정체성의 강화, 관광과 여흥거리, 도시적 성격에 따라 축제를 나뉠 수 있다.

마을 곳으로의 축제는 오랜 세월 반복하여 주민의 염원이 일정 틀로 외현되는 방식으로, 강릉 단오제,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정체성의 강화로는 지역전통, 자연경관, 지역특산물 등의 기제에 따라 전국에서 다종다기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수원 화성과 같은 공간에 역사문화가 결합되기도 하

고, 눈, 연꽃과 같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자연물이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인삼이나 야생차 등 지역 특산물은 축제의 주제 뿐 아니라 지역 생태계, 산업 활성화 등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욕구와 맞물리기도 한다. 관광과 여흥거리로써의 축제는 각종 음식축제, 문화예술제 등 역사와 전통문화와의 연계보다는 지역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다. 도시적 성격의 축제로는 특히 서울시 내 열리는 각종 거리축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축제는 다양한 특징이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의 구분자로 보자면, 성북지역의 축제는 주로 관광 및 여흥 차원의 축제 비중이 높다. 선잠제향을 비롯한 몇몇 축제는 지역정체성 강화로 구분할 수 있으나,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북문화바캉스 등 대체로의 행사는 관광과 여흥의 분류에 근접한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2016)에서는 개최목적과 축제주제에 따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최목적에 따라서는 전통민속 보존, 주민 화합, 지역상품 판매, 관광 이벤트, 문화예술 향유의 5가지 분류가 있는데, 성북의 경우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북진경과 같은 구 단위 축제는 대체로 문화예술 향유에 가까우며 동축제는 주로 주민 화합이나 전통민속 보존의 의미를 띤다. 축제 주제에 따라서는 전통문화축제, 문화예술축제, 생태자연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주민화합축제의 5가지 분류가 있는데, 역시 성북에서는 문화예술축제와 주민화합축제, 전통문화축제가 주를 이룬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부터 매년 서울시 축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축제 평가 조항이 신설된 상태다. 「2016 서울시축제 평가연구보고서」(2016)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축제의 유형을 크게 시민문화형, 관광마케팅형, 전문예술형으로 구분했는데, 해당년도 평가 대상인 성북진경페스티벌은 시민문화형으로 구분된다. 해당 분류를 적용하면 성북의 지역축제는 대체로 시민문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성북구 자치법규에는 총 3개의 법규에 ‘축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문 분과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서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 분과위원회가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

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조 (심사대상) 항목 중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등장하는데 제46조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에서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의 개최를 홍보·기념 하고자 할 때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는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두어 지역축제 추진 및 지원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노원구, 성동구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두고 있고 성동구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특정 축제에 대한 법규를 마련한 자치구도 있는데 강동구는 강동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를, 광진구는 서울동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을 별도로 두고 있다.

## 성북 지역축제의 이슈

### 지역축제 실태 파악의 어려움

성북은 동축제까지 아울러도 10년 미만의 축제가 대부분이며, 문화예술과 관광 또는 문화예술과 시민이 결합된 형태의 축제가 주를 이룬다. 2005년 이후 서울시에서 지역축제가 급증하는 흐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 중 예술가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화예술축제도 성북구만의 색과 협치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밖에도 가을 집중, 문화예술 축제의 증가, 민간 주도형 축제로의 변화 등 수도권 중심 실태조사와의 부합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예상에 의존한 내용일 뿐이다.

지역축제를 지속하고 있는 민간 주체조차 성북지역 축제의 보편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민관 협치 축제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어느 정도 비율인지, 축제사무국 상근자는 평균 몇 명인지, 축제 사무국 정규직 상근 직원은 과연 성북구 내 존재하는지, 평균예산은 비교적 크다는 광주에 비해 얼마나 약소한지, 연간 축제 일정은 적합한지, 관주도 축제의 경우 소위 축제 비수기를 활용한 일정 조율은

어려운건지, 축제지원조례가 필요한지, 지역특화축제가 존재할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제도 지원이 필요한지 등 실로 지역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실효성 있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실례로 성북구의 지역축제를 다룬 각종 자료의 축제목록만 비교해도 지역축제의 범위가 서로 상이하고, 축제명도 다르며, 지역축제, 동축제, 마을축제 등 사용하는 용어의 혼재가 그대로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2016)에 명시된 성북지역축제는 다문화음식축제(현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삼선동 선녀축제, 안암동 은행나무축제, 월월축제, 장위 부마축제, 종암동 북바위축제, 한마음 달맞이 축제, 돌곶이마을 감나무 축제, 최순우 옛집 시민축제다. 한편 서울시 축제지원센터 웹사이트에 성북구로 명기된 자치구 축제는 최순우 옛집 작은 축제 동행, 정릉 버들잎 축제, 장위부마축제, 선잠제향, 성북진경페스티벌로, 총 5개의 행사다.

성북구 내 자료로는 「성북 창조문화도시 기본계획 2020」(2016)에 언급된 대표축제로 성북문화다양성축제 누리마실, 성북진경, 책모꼬지, 성북 훈민정음 축제가 명기되어 있으며 「2014 성북구 동축제 평가보고서」(2014)에 언급된 12개 동축제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성북구 축제 브랜드와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2016)에서는 심우장 다례제, 선잠제향, 누리마실, 부마축제, 선녀축제, 성북진경페스티벌, 훈민정음축제와 동별 13개의 마을축제가 별도로 적시되어 있다.

기관별로 축제 분류나 예산 출처, 조사 용도 등에 따라 축제로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결국 성북구라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북구가 생각하는 축제의 지향, 그에 따른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한 명시, 적합한 제도와 지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기본 연구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민관협치의 로드맵

민관협치에 관해서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2013년부터 누리마실친구들이라는 민간주체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 기반

축제의 컨셉과 더불어 본격적인 민관협치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2016년 누리마실친구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실체화하는 동시에 누리마실캐릭터 탄생, 문화다양성 지지선언과 퍼레이드와 같은 축제 전통을 수립해나갔다. 올해 누리마실친구들은 축제의 단발성을 지양하고 문화다양성 일상화를 위해 4월 사전 네트워크파티부터 5월 축제, 7월 문화야시장 밤마실누리마실에 이르는 기획을 진행했다. 축제를 담당하는 민간주체가 명확해지면서 관련 네트워크와 예술가 주민의 안정적 참여와 - 부족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 매년 축제 컨셉에 따른 공연, 공간, 퍼레이드 기획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기획, 공연, 공간에 대해 축제가 갖는 강점은 공유성북원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평상시 네트워크의 작동으로 인해 수혜 받은 지점이 없지 않다. 실제 지역 내 문화다양성 주체들과 지역가게 네트워크도 함께 꾸려져 일상을 담아내는 축제 거둬야함에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은 상설화를 꿈꾸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안정적 투입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리마실친구들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설사무국에 대한 요구를 천명한 바 있으며, 실제 평가회의에 참가한 구청장의 추진의지도 확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다.

민간주체가 실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협치 축제에 대한 상호간의 의식이 부족한 점도 당면한 난관 중 하나다. 2016년 축제 누리마실에서는 축제 구간 내 세계맥주축제라는 별도의 축제 배치와 임의의 위치 배치를 요청받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 누들축제를 아예 누리마실 사무국이 기획, 배치하는 것과 구민의날 행사를 구간 내 배치하도록 하였는데, 축제 누리마실이 실제 성북구민들의 민간조직에서 공동주관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민간으로 하여금 축제를 바라보는 구의 관점이 소유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민관협치와 정면 배치된다 할 수 있다. 축제 준비 기획안을 사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구나 동 단위의 부스 요구 역시 비슷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불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성북구가 천명한 '다문화대신 상호문화, 문화다양성을 사용'한다는 구호는 축제 누리마실의 중요한 슬로건의 하나로 자리 잡은 반면, 오히려 성북구 내 공공기관에서 공공연하게 '다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를 통한 캠페인의 효과는 당연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관련 사항들은 구와 민간조직과의 소통 부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전망 공유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진일보한 민관협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상호간 노력이 필요하다.

### 축제 지원 체계

구 단위 축제는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힘을 실어보고자하는 민간 또는 재단법인, 임의단체 등의 희생이 전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축제의 수에 비해 인력 배치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으니 전문 인력 발굴과 양성에 힘을 쏟기 힘들다. 이는 문화예술축제를 주로 하는 성북구에서 지속 가능한 기획자, 예술가, 주민 그룹의 발굴을 저해하고 비슷비슷한 구성의 축제를 반복하는 요인이 된다. 정확한 축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신규 축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저예산 편성으로 인한 부실 축제 양산의 매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서울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의 수를 자랑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체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축제에 대한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구조사 사업으로 기초 자료를 구성하고, 축제 기본 요소들을 감안한 표준 비용을 산출하고, 축제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은 지역사회 내 개인이나 민간 주체들이 발굴되고 아직은 덜 지친 지금이야말로 결정적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성북구는 구 주최 축제가 많은 만큼 민간주도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체계 형성이 시급하다.

축제가 문화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은 건, 공동 창작의 산물이자 협동체에 기반한 행위들의 집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축제의 부흥은 주민들의 생활문화 발견과 투영, 집단 의식의 발현으로 연계되는 고리를 생성한다. 나아가 지역축제가 사회 통합과 사회의 거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 같은 땅에 발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 나갈 일상 문화 전승 통로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를 목도하고 개선의 여지를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속 가능성이다.

위에 언급된 이슈는 결국 앞으로 성북구와 축제에 함께하는 민간주체들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이기도 하다. 지역 내 축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민관협치 로드맵을 수립하고, 축제 지원기구나 축제공방과 같은 부속 시설 등 현실에서의 축제 역량 강화와 직접 연계된 행위의 지원 체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요한 하위징아는 책 「호모루덴스」(1938)에서 축제를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적었다. 현대사회의 개별화 쳇바퀴 속에서 공동의 일탈을 구현하는 축제가 다시금 현대사회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축제를 받고 있는 수많은 지역민들의 노력의 무게를 인지해야한다. 민과 관 상호 일상의 소통을 강화하여 원활하고 유의미한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축제 참여자들 간 지역사회 문화 공감대를 마련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제 2

2. 2016 / 2017 정릉버들잎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2. 2016 / 2017 정릉버들잎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3. 지역축제의 현황

- 축제행사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 차별성 없는 유사축제가 지역별로 중복 개최
- 행사 대행업체의 계약 부조리
- 지역행사 개최의 타당성 검증 및 운영평가 체계의 미비
- 축제추진위의 구성(소속공무원, 기초의원, 지역인사 위주로 구성)
- 예산집행의 낭비성, 중복적 행사, 정산검사 통제의 한계
-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 4. 성공적인 축제로 바라 본 지역 축제

#### ① oberammergau 마을. 종교축제



#### 4. 성공적인 축제로 바라본 지역 축제

##### ② 낭프 지방의 'Royal de luxe' 극단, 낭프 축제



- 주민 80만명
- 프랑스에서 6번째 큰 도시
- 프랑스에서 살기 좋은 도시 3위
- 조선소, 패션, 이후 항공, IT, 물류, 기계 등으로 도시재생
- 363,000개의 일자리
- 대서양 최고의 항구

#### 4. 성공적인 축제로 바라본 지역 축제

##### ② 낭프 지방의 'Royal de luxe' 극단, 낭프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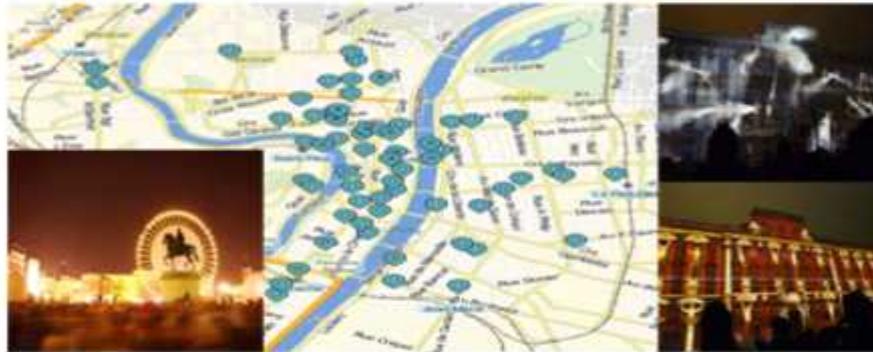
문화산업이 지역 관광 수요형성과  
문화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문화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

도시경제가 전세권이 아닌 마인드

- 문화는 사회적인 연대와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라고 보고
- 문화관련 250 여 개에 활동조합을 지원  
'로얄 드 룩스' 같은 큰 활동조합 및  
어린이합창단과 같은 작은 활동도 지원
- 모든 행사에 문화정책 입안에 시민 참여
- 낭프 아티스트 레지던스 지원
- 세계적인 도시들과 네트워크 강화

#### 4. 성공적인 축제로 바라 본 지역 축제

##### ③ 프랑스 Lyon 'Fete de la lumiere' 불빛 축제



#### 4. 성공적인 축제로 바라 본 지역 축제

##### ③ 프랑스 Lyon 'Fete de la lumiere' 불빛 축제

1980년대부터 구상되고 실행된 리옹시의 조명계획은, 도시환경에서 유승경의 측면에서만 고려되어 오던 야간 도시조명을 시각적인 아름다움 및 도시공간과의 조화라는 미적인 측면으로 끌어 올린 중요한 합작 계획이다. 즉,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를 뿐만 아니라, 전기회사, 조명기술자, 문화유산 관리 전문가 및 예술적인 컨셉 담당자들의 협력적인 구상이 필요했다.

이 계획으로 인해, 리옹시 모든 구에는, 역사유적이거나 주요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어도 건물 건설에 따라서 아름다운 조명이 설치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율이 낮고 수명과 성능 면에서는 훌륭한 연구와 테스트를 사용하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의 물질은 공사에서 쓰던 재료를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별 조명은 미리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별 조명들이 도시 전체의 조명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

## 4. 성공적인 축제로 바라 본 지역 축제

### ③ 프랑스 Lyon 'Fete de la lumiere' 불빛 축제

#### 빛의 축제와 리옹시의 역할

- \* 국제 조명도시 협회
- \* 기업의 참여 증대
- \* 산업과 종교, 행정이 일체 되는 축제/ 모든 시민과 관객이 참여하는 축제
- \* 지역과 국제성, 예술성과 기술성을 고루 갖춘 축제

## 5. 축제의 평가와 대안

### 축제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축제를 시행하는가?

- 축제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안정성
- 재원과 조직의 지속성
- 기획과 운영 주체의 전문성
- 축제의 시기와 적합성
- 축제 대표 프로그램의 적합성
- 축제 공간의 적합성

## 6. 마무리

중추적인 요체인 축제의 사회적 다각화(예: 축제의 다양성)

역사와 전통의 맥락 바탕으로 운영(주요 주민, 지역예술가, 민서관, 마을계획단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지역민 중심이지만 비영리하나)

- 회의구조에서 주민이 참여하기 어렵고
- 주관들이 때마다 바뀌는 구조에서 매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문제점과
- 주관들의 역할구조의 추가어질 방식으로 어느 하나에 따라 축제의 방향이 바뀌고
- MP의 역할이 점점 약화하는 경향이 있어야 할 것들이 많다.
- 지역마다 축제의 건립이 비수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과
- 때마다 반복되는 고립적인 제재들이 개선없이 진행되고 있다.

## 6. 마무리

상급적인 축제들의 사회적 역할 축제의

- 방향과 목적을 한결같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법, 개선 발전, 해를 거듭할수록 보완되고
-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진행 및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을 줄여 지역성과 문화향조라는 기능이 크다.

이런 발전에는

-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과
- 꾸준한 지원의 문화정책이 따르고
- 민과 관이 자유로운 토론구조에서 상호적인 문화와 축제가 탄생할 수 있다.

#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 토론1)

성북지역축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과제  
하장호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이사장

☒ 토론2)

축제와 거리예술창작  
도재형 정릉버들잎축제 예술감독

☒ 토론3)

성북구 지역축제 역할과 방향  
이종임 성북구창조문화도시위원회 위원/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 토론4)

동축제 지역축제의 정체성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지정토론 1

## 성북 지역축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과제

하장호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이사장)

### 축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

- 현재 축제에 대한 정책과 지원체계는 축제의 성격과는 별개로 예산과 행정 중심으로 구축
- 축제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정책과 지원체계 부재
- 특히 지자체의 경우 축제에 대한 정책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자체 홍보와 관광자원의 측면에서와 지역주민 대상의 이벤트 측면에서 축제에 대한 지원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
- 성북구의 경우 누리마실 축제의 거버넌스형 실행체계 구축 등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책인 차원에서의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
- 2017년 축제위원회 구성으로 축제 정책과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하였으나 현재 축제위원회는 1회 회의를 진행한 이후 공전하고 있으며, 제안된 논의도 축제간 일정 조정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축제의 현재적 의미와 주체, 비전, 축제 유형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과 정밀한 지원체계 필요

### 축제 유형에 따른 구분과 지원

구분	내용
관광형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상품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축제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 -전통문화형, 특산물형, 역사문화형 등
문화예술형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형 축제도 관광형 축제로 분류되기도 함 -성북의 경우 문화예술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형 축제 가능 -지역문화생태계에 기반한 선순환구조 구축 -창조적 문화인력의 역량 강화와 발굴 -문화향유권의 강화와 생활문화 활성화
주민통합형	-마을 공동체 기반의 생활형 축제 -마을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축제 -문화적 감수성에 기반한 문화적 관계 형성 -축제를 통한 협력과 공유지 확대

- 모든 축제는 위의 특성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 또한 축제의 실행과정, 주체의 성장, 시간의 흐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기도 함
- 하지만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해당시기 축제의 성격, 또는 이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선택이 필요
- 축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띄지만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의 경우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경우 행정이 기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일종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과도한 역할 설정은 축제의 자율성, 창의성, 통합성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과도한 절차와 형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문화관광형 축제의 경우는 예산운영의 전문성, 지역 브랜드 전략과의 통합성, 경제 영역과의 확장성 등의 필요가 있는 만큼 행정 영역에서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
- 문화예술형, 주민통합형 축제들의 경우는 예산지원과 최소한의 행정사무 외에 기획과 실행, 평가 등을 민간주도 거버넌스의 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현재 성북구 조례상에는 축제와 같은 공공사무를 거버넌스형 실행 구조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
- 또한 전문적인 축제 지원을 위한 인력 개발과 예산 확보, 관리 시스템도 부족
- 주민통합형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동축제의 경우 해당 시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지만 동단위의 축제 지원 인력, 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지역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기획사 대행으로 주어진 예산을 소모하기에 급급
- 동단위의 다양한 주민 자치 활동과 문화적 자원들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동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축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축제지원센터와 축제지원네트워크 구축
  - 성북지역 축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지원플랫폼 필요
  - 유형에 따른 축제 지원의 차별화와 전문화
  - 축제 자원의 운영과 정책 개발
  - 축제 협력 구조 구축

- 동 단위 문화예술지원관 배치
  - 동 단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축제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지원관 제도 도입
  - 지역 예술가, 문화기획자 일자리 창출
  - 주민자치 활동의 다양성 확대
- 축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
- 축제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축제의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 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 청년, 예술인뿐만 아니라 주민,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을 축제 주체로 발굴
  - 축제의 인적자원 확대
- 행정 내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회적경제, 마을민주주의 등 다양한 행정 주체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테이블 마련
  - 장기적으로는 마을민주주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통합적 예산/실행체계 구축

## 축제와 거리에술창작

도재형

(장위부마축제MP/성북진경 총예술감독)

내가 생각하는 축제 - 난 축제를 학문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학자나 기획자가 아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주 주관적일 수 있는 관점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 한다. 혹시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검증 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단지 내가 이 포럼에 참가 할 수 있는 이유는 2007년 부터 활동하고 있는 거리극 예술 단체 공작소36을 운영하고 연출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축제를 경험하고 간혹 해외의 축제에 참관 하며 생겨난 축제를 경험한 사람으로써의 참견인 것 같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고 읽고 먹고 느끼며 배우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것이다.

### 교육기관의 협조. 지역 전체의 축제

국제적 규모의 축제 안에는 거리극 이라는 공연형태가 항상 존재한다. 야외 공간을 이용한 공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연단체들의 제작소가 그 중심에 있으며 그러한 공간은 그 지역의 공공 공간 혹은 유휴 공간을 장기적으로 무료 임대 해주며 예술적 공간, 창작의 공간으로 변화 시킨다. 축제 기간 외에도 상시적인 공연의 발표가 이루어 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며 음악, 춤, 오페라, 연극 등 분야도 다양하다.

### 전문적인 교육기관 및 전문적인 예술단체와의 협업

- 지역 공간의 협조 및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관심  
알려진 축제의 장을 가보면 지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축제의 이해가 높다. 지역주민 모두가 주최자 인 듯 축제를 잘 이해 하고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불

을 이용한 공연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마을 하나를 불로 전시를 하며 전시 형태로 공연을 하는 팀이다. 재작년 서울거리예술축제도 왔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마을의 모든 전자적 불빛이 사라진다. 그것 자체가 놀랍고 공연이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교 및 사설 학원들이 축제를 통한 작품 발표와 공연의 장으로 활용하며 축제를 주체하는 지역에서 서로 상부상조함 .

축제의 공간에 필요한 지역 주민의 협조  
주민들이 축제를 통한 이익,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축제 기간 뿐만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고 끝난 후에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 방법은 모르겠다 .

축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 환경의 개선 . 원주민의 땅값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지는 성북의 축제 .

우리나라의 축제 중 축제의 중심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진 과천 한마당 축제가 있었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이름이 몇 해 전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바뀌었다. 안산 거리예술축제, 수원 화성 국제연극제 , 고양 호수 축제 등 많은 축제들의 이름과 내용을 보면 거리극을 표현하는 공연의 형태가 그 중심에 있다. 축제는 거리예술의 꽃이다. 거리예술의 꽃은 축제다 라고 생각한다. 공공 공간과 거리를 이용한 공연형태의 표현이 곧 축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장르에서 말이다 .

## 성북구 지역축제 역할과 방향

이종임

(성북구창조문화도시위원회 위원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 <성북구 지역축제>

- 성북문화다양성축제 누리마실, 성북진경 페스티벌, 성북문화바캉스, 성북 책 모꼬지 중 누리마실과 성북진경은 민간 사무국에서 운영
- 동 단위 축제

지역축제는 지역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활동이다. 오늘날까지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해주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다는 명분 아래 지역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정체성의 회복과 지역주민 화합의 기존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기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축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주상욱(2006)에 따르면, 국내 지역축제의 경우 지방정부와 축제조직위원회, 지역주민, 지역상인, 지역NGO등 다양한 지역축제 이해집단들이 존재하며,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수 요인들이 많아 이해집단 간 갈등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sup>2)</sup> 신용석(2004)은 국내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축제조직위원회의 역할을 주목한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지역축제의 집행과 기획을 하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집행과 기획에 개입하면서 축제조직위원회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sup>3)</sup>

1) 노경희·김창수, 지역축제 실행단계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관리가 축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GRI연구논총>, 2012년 제14권 제1호, 111쪽.

2) 주상욱, 관광개발에 대한 행정당국의 갈등관리가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예상지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신용석, 지역축제에 나타난 지역사회 참여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해집단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2004년 제56차 단양 국제학술심포지엄, 2004, 127-136. 참고.

성북구에서 진행되는 축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지역축제의 현실을 고려해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문화사회연구소 2016년 보고서인 <성북 창조문화도시 기본계획 2020>에 담겨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창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실행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북구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성북축제지원센터 설립이다.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성북구에서 치러지는 축제들의 성과에 비해 축제를 통한 인적/물적 역량 등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상황 때문이다. 구단위 축제들이나 동단위 축제들의 경우 기획/운영을 포함한 축제의 총괄을 각 단위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면서 성북구 전체의 지역성을 고려한 구단위 축제정책을 만들어 가기가 어렵고, 지역성과 인근지역의 타 축제와의 관계를 고려한 축제 기획과 컨설팅,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구 단위 축제의 경우, 축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예산 지원, 촉발한 축제 준비 일정 등으로 축제 운영 주체들과 참여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축제가 이루어진다. 동단위 축제는 동 단위마다 축제가 있어 운영주체들의 기획과 사업진행 역량에서 많은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 ①성북구 차원에서 지역의 축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각 진행주체들을 지원한 허브 조직이 필요하다.
- ②지역축제 거버넌스 구축과 전문인력 발굴, 양성을 수행할 축제 아카데미 기관이 필요하다.
- ③축제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 ①성북축제지원위원회

성북구 지역 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싱크탱크,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지역주체, 예술가, 문화기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구조

- 성북구 축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
- 성북구 축제 컨설팅 및 평가
- 성북지역 특성화와 브랜드 개발
- 성북축제학교 운영
- 성북축제 공유창고 운영

### ②성북축제학교

- 시민의 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발굴하고 육성

하기 위한 교육 과정과 시스템 필요

- 강좌 중심으로 수동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흥미유발을 위한 워크숍, 탐방 등의 교육과정
- 성북축제학교 참여자들 중심의 성북구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지역주체들의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기존의 활동주체들 외의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성

### ③성북축제 공유창고

- 축제 물품 공유 창고 운영: 축제에 이용된 무대, 설치물, 물품 등이 축제 기간 동안만 일회성으로 사영되고 버려지거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물품관리가 안되는 상황
- 물품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공간 마련

### ④축제 공방 운영

- 축제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품 제작 마련을 위한 공방 운영

위의 내용과 같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성북구 지역축제의 현실을 고려해 성북구에 적합한 지역축제 운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정토론 4

# 지역축제의 방향을 위한 몇가지 제언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 지역축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축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 대표축제와 동별축제의 정체성 및 실행 체계 구분 필요

### (1) 대표축제

- 구청과 문화재단 등 행정 및 예산 구조와 민간사무국 구성을 통한 축제실행체계로 축제의 내실과 질적 수준 담보
- 대표축제를 통해 지역자원이 드러나는 과정 설계
-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동시대 대중들의 욕구가 담긴 축제 프로그램

### (2) 동별축제

-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행체계에 전문가그룹의 적절한 개입 필요
- 한정된 예산 구조를 넘어 동별로 '축제기금'과 같은 지속적인 방안 고민
- 동별 특성과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세밀한 접근 필요

○ 축제추진위원회(동축제)의 구성과 역할 재조정

- 축제의 기획과 콘텐츠, 실무 등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축제추진위원회 결합을 통한 의사결정구조와 실행체계 전환 필요
-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단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과제

○ 축제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 건물 등 하드웨어가 아닌 지역축제의 통합체계 구축
- 지역축제 자원의 통합과 연계 지원
- 지역축제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축제 주체와 자원 개발 및 아카이빙
- 대학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축제의 확장성
- 무대 설치 및 축제 율품 공유 등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기대

## 부록

### 성북구 지역축제 소개

1. 누리마실
2. 성북진경
3. 책모꼬지
4. 문화바캉스

### 성북구 동축제 소개

1. 삼선 선녀축제
2. 월곡 달빛축제
3. 의릉 문화축제
4. 장위 부마축제
5. 정릉 버들잎축제



지역축제 ①

성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일시: 2017년 5월 21일(일)

장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일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통해 민족, 인종, 국가, 성별을 넘어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성북구의 문화다양성 축제입니다.





지역축제 ②

성북진경 페스티벌

일시: 2017년 10월 13일(금)-10월 29일(일)

장소: 서울시 성북구 일대

성북의 역사, 사람, 공간을 다채로운 문화예술콘텐츠로 만나는 성북대표 가을 축제입니다.





지역축제 ③

성북 책모꼬지

일시: 2017년 11월 4일(토)

장소: 동덕여자대학교

한 해의 독서운동을 예술가, 도서관, 관내기관 등이 함께 모여 의미와 성과를 나누는 성북 대표 책 축제입니다.





지역축제 ④

성북문화바캉스

일시: 2017년 7월 28일(금)-8월 5일(토)

장소: 송덕초등학교, 송인초등학교

한여름 휴가철에도 바쁜 일상으로 피서지를 차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바캉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여름 물놀이 문화축제입니다.





동축제 ①

삼선 선녀축제

일시: 2017년 10월 15일(일) 11:30-17:00

장소: 삼선동 일대,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

삼선 선녀축제는 하늘에서 강림한 삼선녀의 미모에 반해 세 신선이 내려왔다는 '삼선동'의 유래에 따라 삼선동만의 특화행사로 자리 잡은 지역축제입니다.





동축제 ②

월곡 달빛축제

일시: 2017년 10월 28일(토) 15:00-21:30

장소: 동덕여대 운동장, 월곡2동 동덕여대 오거리

월곡 달빛축제는 ‘달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월곡동 지명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 선조들이 복을 기원하던 ‘달’, 우리 생활들이 더 좋아지길 희망하는 ‘빛’을 주요 키워드로 잡아 월곡 1동과 2동이 함께 진행하는 축제입니다.





동축제 ③

의릉문화축제

일시: 2017년 10월 28일(토) 10:00-18:00

장소: 의릉 일대

의릉문화축제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 하는 역사문화축제이며, 석관동 주민의 일상적인 삶의 축제가 되는 주민참여형 축제입니다.





동축제 ④

장위 부마축제

일시: 2017년 10월 14일(토) 15:00-21:00

장소: 장위동 김진흥가옥, 성북구 돌곶이로 24길 일대, 장위초등학교

장위 부마축제는 장위동에 위치한 부마가옥(조선시대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의 남편인 부마 남영위가 살았던 집)에서 전통궁중혼례를 재현하며 마을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동축제입니다.





동축제 ④

정릉 버들잎축제

일시: 2017년 10월 28일(일) 13:00-17:30

장소: 정릉 정릉천 일대

정릉동 주민들이 하나 되는 버들잎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중 하나인 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정릉지역의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전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의 축제입니다.



